

“밭길마다 꽃대궐”...순천 도심 봄꽃 정원 변신

탐매마을 흥매화 시작 ‘개화 릴레이’ 동천 10km 벚꽃 터널·선암사 겹벚꽃 드라마촬영장 등 레트로 감성 물씬

따스한 봄기운이 번지는 생태수도 순천시가 도심 전역을 거대한 봄꽃 정원으로 단장하고 상춘객들을 향해 화려한 ‘봄의 초대장’을 띄웠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탐매마을의 봄은 흥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가장 먼저 봄의 기지개를 켜다. 전국에서 개화가 가장 빠른 이곳은 인근 매산 등 근대문화유산 거리와 이어져 고즈넉한 봄날의 정취를 뽐내는다. 이어 도심을 관통하는 동천을 따라 약 10km 구간에서 흐드러진 연분홍 벚꽃 터널이 끝없이 펼쳐지며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동천 벚꽃이 질 무렵인 4월 중순부터는 선암

사 입구를 수놓는 풍성하고 진한 색감의 겹벚꽃이 바통을 이어받아 봄꽃 릴레이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번 봄 여행의 핵심 거점으로 노을정원과 네덜란드 정원 일대에는 수만송이의 튜립 군락이 마치 화가의 팔레트를 엮어놓은 듯한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한다. 더불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쉼을 즐기는 능동형 힐링 프로그램인 ‘가든멍’을 운영, 100인이 만들어내는 고요하고 색다른 정원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4월에는 개화 최절정기에 맞춘 ‘국가정원 톨립페스티벌’과 ‘정원 봄꽃 피크닉’이, 5월 어린이날 주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쉼 없이 이어진다. 순천 전역에서 펼쳐지는 끊임없는 봄 축제 향연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달 초 조곡동과 서면, 용당뚝방길을 잇는

벚꽃 축제를 신호탄으로 25~26일 조례호수공원에서 은은한 등불로 야경을 밝히는 연등회 행사가 밤하늘을 수놓는다. 아울러 같은달 말 송광면 고동산 철쭉제, 5월 풍덕동 장미축제에 이어지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꽃의 향연장이 될 전망이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웰니스와 레트로 체험 투어도 상춘객을 기다리고 있다. 4월 한달간 선암사 숲길에서는 겹벚꽃을 배경으로 야생차 블렌딩과 다도를 체험하는 ‘차 오르는 봄 기획투어’가 운영된다. 드라마촬영장에서는 옛 교복 체험과 노란 유채꽃밭이 어우러진 레트로 여행, 600년 역사의 낙안읍성에서는 초가집 담장 너머 핀 봄꽃 아래서 명예별감 체험과 국악 공연을 즐기며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 하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봄은 단순히 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자연 속에서 견고 쉬어



봄을 맞아 순천시가 다채로운 봄 축제 향연을 예고했다. 사진은 순천 선암사에 핀 겹벚꽃 모습. <순천시 제공>

가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라며 “정원과 전통을 뛰어넘어 특별한 봄의 여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철 기자

조각으로 인간 감각 조명...‘형태의 잠언’展

화순 최상준미술관서 6월14일까지 돌·나무·금속 등 조형 언어로 풀어내

조각을 매개로 인간의 사유와 세계 인식의 방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획전이 화순에서 막을 올렸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기획 전시 ‘형태의 잠언’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 ‘형태는 언어 이전의 언어’라는 고유한 개념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조각을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닌, 인간의 감각과 사유가 응축된 존재로 새롭게 조명하며, 오는 6월14일까지 이어진다. 참여 작가들은 돌과 나무, 금속 등 다채로운 물성을 지닌 재료들을 하나의 형태로 응축시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의 본질과 시간의 관



계를 조형 언어로 다채롭게 풀어냈다. 전시의 제목인 ‘잠언’처럼 출품된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짧지만 묵직한 울림을 던진다. 작품의 형태가 고정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전시장 내의 빛과 흐르는 시간, 그리고 관람객의 시선에 따라 매번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점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단순히 조각을 감상하는 선을 넘어 작품 앞에서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인예술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조각을 통해 물질과 형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짚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깊이 있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전시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획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군-농·축협,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협력 맞손

면 단위 하나로마트 이용 허용 이동장터 운영·수익 일부 환원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상권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내 5개 농·축협과 두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상생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곡성·석곡·옥과·입면농협, 곡성축협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업 시설이 부족해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농협 측의 지역 사회 환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농협은 반찬 나눔, 장학금 지원 등 다채로운 상생 활동을 추진한다.

교통이 불편한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이동 장터’를 운영하며, 희망복지기동서비스 등과 연계해 복지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 장터 매출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다시 환원해 기본소득 자본이 지역 내에서 든든하게 선순환하는 토대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곡성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과 농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이 '2026년 고흥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참여자들이 유자나무밭을 찾은 모습. <고흥군 제공>

고흥군, ‘나만의 유자나무’ 분양 참여자 모집

오는 5월 말까지 QR코드 신청

고흥군이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공감형 체험 프로그램인 ‘2026년 고흥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참여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신청자가 1년간 자신의 유자나무를 지정해 이름표

를 달고, 수확 시기에 직접 과실을 따는 방식이다. 행사는 고흥유자축제가 열리는 풍양면 양리마을 일원에서 진행된다. 분양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5월 말까지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등록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양 가격은 유자 생과와 체험비 등을 모두

포함해 1주당 6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고흥군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지정돼, 20만원 이상 기부자 역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상생과 기부 문화 확산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도시민이 고흥 유자의 우수한 품질과 매력을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여수 돌산홍갯·해풍쭈·방풍, 국제 ‘맛의 방주’ 등재

국제슬로푸드협회 가치 인정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성과

여수를 대표하는 고유의 지역 특산물들이 전 세계 소멸 위기에 처한 전통 식재료를 보존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돌산홍갯과 거문도 해풍쭈, 섬방풍 등 3개 품목이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세계 식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최종 등재되는 쾌거를 거뒀다. 맛의 방주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며 전통적으로 계승돼 온 식재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재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식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 약 8개월 만에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의회 역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전격 구성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힘을 보태며 등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시는 이번 국제적 등재를 발판 삼아 전통 식재료의 보존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이를 적극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과 식문화 콘텐츠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여수 고유의 맛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아침 소통 간담회’...애로사항 공유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담양군은 “최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아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과에서 매주 실시하는 자체 친절 교육 시간에 맞춰 마련했으며, 민원과를 비롯해 세무·건축 등 각 부서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간담회에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겪는 다양

한 경험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민원 행정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민원 창구는 군민이 행정을 처음 접하는 중요한 접점인 만큼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민원과는 매주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 재난 대응 ‘스마트 마을방송’ 확대

스피커 위급 시 119 즉시 연결

장성군은 24일 “농촌과 산간 지역 주민들의 재해·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양방향 마을방송 시스템’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옥외용 스피커는 탁 트인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서 방송을 정확히 듣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스마트 방송 시스템은 각 가정에 소형 스피커를 설치해 명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외출 시 농진 방송도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으며, 마을 이장 역시 회관에 갈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손쉽게 원격 방송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응급 구조 기능으로, 스피커 상단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119 소방서나 보호자 등 미리 지정해 둔 연락처로 위급 상황 이 즉시 전파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황룡면과 북일·북하면 일대에 총 4천372대를 설치한 군은 올해 456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